

'멀티악재' 앞에서 기우제만 지낼텐가



자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자 합니다”

4.10 총선을 2주 정도 앞둔 지난달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모두발언 요지이다. 상황이 양호한데 '비상' 대책 회의를 왜 하는 지 어리둥절해진다. 집권 여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경제권력인 만큼 대사(大事)를 앞두고 대업(大業)가도에 흠집내는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그러나 안이한 인식 수준을 넘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시키는 것은 아닌 지 심히 우려스러웠다.

지금 한국경제는 정책사령탑의 표면적 인식과 판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는 '고환율

-고물가-고유가'라는 트리플악재가 한 몫하고 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이해 못할 국면으로 치솟고 있다. 이미 원화환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360원을 넘어섰고 1400 원대까지 치솟았을 때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하며 1분기에만 90억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5조1732억원 순유입을 기록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달 연속 유입세를 보였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FDI)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70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달러가 지속적으로 국내 순유입되는 상황이라서 허약한 현재의 원화악재 추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의 경제연착륙과 연결된 강달러 상황 앞에서 원화 가치가 힘을 못쓰고 있다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는 울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의 전쟁확산 우려로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가인상을 겨냥한 러시아가 최근 감산을

결정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현재의 감산체제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외산들은 유가가 다시 100달러대에 올라서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과 유가는 가뜰이나 불안한 국내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

트리플악재 속에서 대출 부실화가 겹친다면 차칫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장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영세사업자와 가계의 한계대출이 부채위기로 비화할 것이란 루머가 떠돌고 있다. 총선결과로 나온 극단적 여소야대정국에서 현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통경제관료 출신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여당회의에서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앞에 있었다. 현 정부의 위기에측과 문제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이미 올라선 형국이다.

/skc8472@metroseoul.co.kr

너무 성급한 금투협 야구대회 폐지



기 지 수 첩
원 관 회
(자본시장부)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데는 스포츠만큼 좋은 것이 없다. 몸을 부딪치면서 땀을 흘리는 운동만큼 효과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야구대회,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며 회원 사들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다져왔다. 올해도 한국거래소는 마라톤대회를 열고 금융투자자들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다. 주 행사인 마라톤대회 외에도 회원사별 대왕제기차기 대항전, 어린이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대회와 에어바운스 챌린지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진행됐다. 성황리에 끝난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가족 8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금융인의 친목활동 일환이었던 스포츠 대회에 찬바람이 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소통과 화합의 행사'인 야구대회를 폐지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야구대회는 10년 동안 증권사, 운용사, 유관기관 등의 친목을 이끌어 왔던 대회였다. 단순히 친목을 넘어 대회 참가팀들이 모은 자선후원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행사 폐지에 대해 협회는 소수의 인원만 참가하는 야구 외 다양한 스포츠나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요구가 회원사로부터 증가하고 있어 폐지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정 스포츠보다 사회공헌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야구 대회에 투입되던 예산을 다른 사회공헌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할

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회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야구대회가 참여업체의 호응도 없이 유명 무실하게 진행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금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폐지된다는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오랜 기간 참여했던 대회였던 만큼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던 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를 쉽게 없앤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은 결정이다.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회 입장에 맞는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한 야구대회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wkh@

오늘의 운세 4월 12일 (음 3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친척과 문서거래가 있겠다. 48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신중하게 행동. 60년생 꽃길 따라 내 마음도 오묘하다. 72년생 자비는 무엇인가를 베푼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 84년생 작은 먼지가 눈을 아프게.



37년생 아랫사람 말을 잘 경청하면 이로운 일이 있다. 49년생 의식과 사고의 변혁은 나부터 실천. 61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73년생 루세 상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85년생 조상님 덕이 내려온다.



38년생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찌나. 50년생 타인의 평가에 노여워 말고 행동을 고쳐라. 62년생 아무기가 천룡을 기다렸으니 승천. 74년생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허둥거림. 86년생 다리가 부러질 것을 발목이 빠는 정도로 넘겼다.



3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51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하면 잘 처리. 63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행동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75년생 이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87년생 어린 시절의 꿈을 되새겨 본다.



40년생 경험상 유리한 정보를 습득. 52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4년생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76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88년생 내면의 천재성에 경외심이 있다.



41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나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것이다. 53년생 아름다운 처신은 구슬수를 예방한다. 65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일을 처리. 77년생 불행하다고 생각 말고 자성 개혁을 일구어보라. 89년생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법이다.



42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을 두지 말라. 54년생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6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쉬지 말고 전진. 78년생 어느 곳이나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90년생 알면 보이듯이 지혜를 찾자.



43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67년생 사람은 나를 슬프게 만들기도 한다. 79년생 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좋은 꿈을 얻지 못함. 91년생 도화가 발동하니 이성과 대화를 신중히 해야.



44년생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어찌 알겠는가. 56년생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 말고 가족에게 잘하라. 68년생 고급의상실에 가서 화려하게 반신해본다. 80년생 내일의 태양이 있는 한 슬퍼할 것 없다. 92년생 반려 아기를 키우려면 계획을.



45년생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법이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57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보라. 6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 81년생 인연을 만나도 때가 아니라서. 9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46년생 살림하는 주부가 오늘따라 유난히 바쁘다. 58년생 늦지 않았으니 근검절약으로 대비를 시작. 7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 82년생 수출 실적이 좋아서 회사가 기쁘다. 94년생 미래를 위해 내 신용이 큰 자산이다.



47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운행 꼼꼼하게. 59년생 운세가 상승하니 동업자와 영업실적이 향상. 71년생 흰색 옷이 그대에게 행운을. 83년생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 기억해두면 길선하게 변화. 95년생 반려 아가 강아지를 보며 중국어 간 푸바오가 생각.



김상회의四季 돈과의 밀당

사람 사물 사이에는 밀고 당김이 작용한다. 친구 사이나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 그리고 연인 사이도 이 법칙이 작동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는 특히 돈에도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돈을 경원시하는 정서가 있다. 돈을 주고받을 때 꼭 봉투에 넣는 문화가 있다. 기본 예의이겠지만 어떤 문화학자는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한참 전부터 채테크 바람이 불면서 돈벌이에 관한 서적이 많이 출간됐다. 서점에 가면 다양한 채테크 서적이 있고 판매도 잘 된다.

그런데 요즘 전철이나 도서관에서도 채테크 책을 보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은 어디로 갔을까. 돈 버는 책을 드러내놓고 보기 쑥스러워 사람들 없는 곳에서 보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일까. 유교적 성향으로 돈을 멀리하려 하고 돈을 밝히면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하는데 돈을 밀어내면 돈이 나에게 올까. 생각해보자. 모든 생물과 사물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작용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언연중에 나를 멀리한다. 돈도 예외가 아니며 사물이라고 다르지 않다.

돈은 사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당장 아파봐라. 당장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사랑이고 가족이고 긴병에 장사 없으니 좀 더 솔직해지자. 밀어내지 말고 돈을 내 쪽으로 당길 방법을 찾고 돈 버는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버는 것이 실력이다. 모으는 것이 능력이다. 잊지 말자.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인식하지 않게 사랑한다면 돈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매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6			3	8	5			
		3	1					
3			5		6	9	7	
			4		9		6	
9				1				5
	5		8		2			
	7	1	2		8			9
				1	2			
3	2	9						4

5	4	9		6		3		
	7			4				
	5	2	7				8	6
3	9					8		
	6						1	
		7					5	9
7	2				6	9	4	
			9				2	
	8	5		6	3	4		